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6) ④

(가)시는 떠나갈 님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시는 암담한 일제 치하에서 독립에 대한 염원과 생명력의 희구를 노래하고 있다. 이 두 시의 공통점은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①은 두 시 모두 주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보고 있다. ②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의 경우, (가)시는 미래 시제, (나)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다. ⑤는 (가),(나) 모두 설득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207) ⑤

(가)에서의 꽃은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또는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승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에서는 가뭄과 추위 속에서도 피는 존재로서,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함축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8) ⑤

원작과 개작을 비교해 보면 시적 대상, 화자, 그리고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개작에서 글자 수를 7.5조로 조절함으로써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3음보의 운율을 느낄 수 있다.

209) ①

(나)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제시된 예문 중 암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는 시행으로 구분하면 된다. ①은 암담한 현실, 즉 일제 치하의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②~⑤는 이러한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10) ⑤

(가)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체념인 데 반해, (나)시의 시적 화자는 적극적이고 의지가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시적 화자가 (가)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①,②,③,④는 두 시적 화자의 태도로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화이다. 그러나 (나)의 시적 화자가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지닌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을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⑤의 내용은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11) ①

(가)는 배경을 이루는 '조각달', '천 년의 구름' 등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고, (나)는 '깃도리'라는 생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천충랑(현한 물결)', '뜰 앞에 심은 난', '외기러기', '강천에 지는 해' 등의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유배지에서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212) ②

(가)의 '조각달'은 천 년 동안 변함 없이 흘러가는 구름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자연물이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뜰'은 화자가 쓸쓸한 마음이 강조되는 분위기로서의 자연물이다. (라)의 '명월'은 화자가 과거에 익숙히 아는 존재로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213) ①

(가)에는 초월적 존재가 나오지 않았다. 초월적 존재로 간주할 수 있는 '기린마'와 '천손(天孫)'은 각기 '성인이 나올 징조를 알리는 상상의 짐승'과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킨다. 화자는 이것을 통해, 어지러운 당시 세상을 구원할 인물이 나올 징조도 보이지 않아 동명왕과 같은 영웅이 그리워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214) ⑤

(나)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나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과 비유적 표현이 쓰인 것만 찾으면 된다. ⑤에는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이 '나무 되어 서 있네'라는 비유적 표현(은유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②③은 '임에 대한 그리운 심정'은 나타나 있지만 비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215) ④

④의 '풍파'는 문맥상 '뱃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낼 뿐, 정치적 이유로 화자가 겪은 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화자가 유배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예전에 평화롭게 지내던 친구들이 그리워진다는 문맥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216) ③

이 글에서의 '열쇠'는 '재산'과 '가업 계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덕기에게는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족쇄와도 같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장으로서 집안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③은 책임과 함께 경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17) ①

조부는 덕기에게 열쇠를 맡기기 위하여,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며, 집안 사정이 복잡하여 덕기만을 믿을 수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글 중에는 덕기의 욕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덕기가 열쇠를 열린 집어넣는 것은 수원택 때문이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218) ③

이 글을 통해 볼 때, 수원집은 열쇠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락을 꾸며 온 인물이다. 그러나 덕기가 빨리 도착하여 덕기에게 열쇠가 돌아가 버림으로써 그 계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219) ①

조부는 손자인 덕기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결코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돈에 대해 결벽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보이고 있다. 조부는 사당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덕기를 공부시켰고, 이제는 덕기가 자신 대신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덕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 또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재산과 사당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부는 가문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20) ②

이 글은 조부가 상속권을 아들이나 수원집에게 주지 않고 손자인 덕기에게 물려준다는 것과, 이에 따른 갈등이 중심 내용이다. ①③④⑤는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나 ②는 이러한 사건이나 갈등 양상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221) ①

주인공 이생은 벼슬도 구하지 않고 최씨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22) ④

이 글에서 최씨는 죽은 혼령이지만 이승에서 이생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귀신의 명부에 실려 있는 몸이라서 떠나야 한다면서 이생과 헤어진다. 이로 볼 때, 글쓴이는 사람이 죽으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223) ②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② 또한 삼신산 같은 수명과 백 세 영화를 누리면서 원앙처럼 한평생을 보내겠다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과 같은 상황에서 최씨가 불렀을직한 노래로 적절하다.

224) ⑤

<보기>처럼 최씨가 살아난다면 이 작품은 원작과는 다르게 행복한 결말을 갖는 작품이 된다. 그러나 ⑤의 지적처럼 최씨를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애초부터 전기성을 띤 비현실적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며, 소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225) ③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 성어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었다는 부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뜻하는 한자 성어로는 ‘금실지락(琴瑟之樂)’이 있다.

226) 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해프닝은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을 논리적인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고 했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일회적이고, 일관된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해프닝과 삶 자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를 통해 ⑤ ‘해프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삶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지.

227) ①

<보기>의 시를 보면 기존의 시와는 다르게 무얼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아. 이 시는 이렇게 일상적 관습에서 벗어나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으므로 해프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①을 보자. <보기>의 시가 당시 현대시의 주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네. 하지만 이 시는 당시 현대시의 주류와 거리가 멀 뿐더러, 당대의 주류라는 것이 해프닝의 특성도 아니지. 따라서, ①은 잘못된 설명이야.

228) ④

<보기>의 () 안에는 해프닝의 특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 ④를 보자. ‘자의식이 강하고 우발적이므로 관객 사이의 합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보기>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기존의 예술의 관습과 대조되는 해프닝의 특징이야. ④는 이와 관련해 해프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정답이지.

229) 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프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돼. 이 글에 따르면 해프닝 예술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실험 정신이야. 즉, 기존의 고정된 예술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보기>에 제시된 해프닝 예술 작품은 이러한 해프닝 예술의 모험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고. 또, <보기>에서 이 작품은 거대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불쾌감마저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사물의 의미를 전복시켰다고 할 수 있지. 따라서, ‘고정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예술’을 주제로 삼고, ‘사물의 확대를 통한 의미의 전복’을 부제로 붙일 수 있어.

230) ③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정답 해설

문학과 과학의 특징을 견주어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글로 정답은 ③이다.

231) ⑤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각 문단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전체 흐름의 맥을 잡은 후 답지의 내용과 해당 부분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정답 해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지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도 인간의 지적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⑤).

① 한국 문학이 총체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② 문학이 정신적 욕구를 채워 주며, ③ 과학 기술에 의해 인간의 정신적 욕구가 만족될 수 없으며, ④ 문학 양식에 의한 정신적 탐구가 필요하다.

232) ②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이 글은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문학적 사색, 사색의 문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②).

233) ②

제시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핵심 주제를 추출하는 능력이다.

정답 해설

과학 기술 시대에 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묻고 있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오답 피하기

① 문학의 특징, ③ 문학은 과학과의 분리, ④ 문학과 삶의 관계, ⑤ 문학은 인간의 가치관 형성 등은 논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34) ③

문학의 특질에 나타난 이유를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필자의 주장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정답 해설

인생의 의미를 객관화시켜, 반성하고 새로이 창조할 수 있는 장르로 소설을 필자는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